

## 제2회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성황리에 개최

성인문해골든벨, 인문학 강의도 함께 열려 더욱 풍성

2017년 한 해 동안 배운 것을 나누고 뽑내는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가 지난 11월 23, 24일 이틀간 도시철도 당리역과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지난 해 보다 많은 체험거리와 공연이 펼쳐졌다. 전년도 도시철도 당리역에서 체험, 전시, 공연의 성과 공유회만 개최한 것을 올해는 사하구청 본관4층 대강당에서 성인문해골든벨과 인문학 강의를 추가해서 더욱 풍성한 성과 공유회를 마련하였다.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는 평생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나누며 즐기는 자리이다. 이 날 행사는 평생학습을 경험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봉사로 펼쳐져 더욱 뜻깊었다.

당리역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한 성과물 전시와 무료 체험활동이 펼쳐졌다. 성인문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시화전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지나가는 주민들의 발길을 머물게 했다. 사하구를 대표하는 관광지와 인물 사진도 전시되어 있었다. 사하구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뚝딱뚝딱 나무공작소의 목공 인테리어 소품과 선물포장동아리 리센의



포장 전시품들 그리고 앙금플라워수업에서 만든 떡케이크, 북아트 및 북폴딩 전시 등 그 동안 수강생들의 노력과 보람이 만들어 낸 결과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평생학습의 영역이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로 맞춰볼 기회도 있었다. 평생학습을 한 번도 접하지 못했다는 어느 주민은 고흐의 작품 ‘어떤 첫걸음’의 설명을 들으며 퍼즐을 맞추다보니 어려워 보이던 작품이 더욱 친근하고 잊혀지지 않는 작품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가연(10세·하단동) 학생은 “작년에도 오고 올해에도 체험하러 왔는데 할 게 더 많아져서 좋아요. 여러 가지 다 체험해 봤는데 나무로 만드는 우드버닝 액세서리 만들기가 촉감이 좋아서 제일 재미있었어요”라고 체험 소감을 밝혔다.

평생학습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접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어느 분야든 평생학습을 경험한 주민은 더 깊은 배움의 갈증으로 목이 마를 것이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나아도 없다. 이번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를 보면 다양한 연령대의 평생학습 경험자들이 많고 관심분야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다는 주민도 있었다.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를 통해 그들 또한 평생학습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정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 평생학습의 꽃, 성인문해 골든벨과 시화전 … 세종대왕상 장림1동 정하자님



성인문해 골든벨이 11월 23일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사장 주변에는 교육 참여자들이 직접 쓰고 그린 시화도 전시되었다. 이번 행사는 사하구의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행사의 하나로 열렸다. 평생학습이라면 성인문해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글을 모르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사하구내 기관에서 문해교육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하구는 이를 격려하여 자존감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 행사를 마련했다. 이런 발표의 장을 통해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장인 사하구청 대강당은 50여 명의 빨간 쟁 모자를 거꾸로 쓴 골든벨 참가자들과 사하구 문해교실 11개 기관 응원자들로 열기가 가득찼다. 설장구로 흥을 돋우며 시작한 행사에서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글을 배우지 못했다가 이제라도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참 좋다.”며 성인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개회사를 했다.

이경훈 구청장도 참석한 오픈 문제는 “닭다리는 어느 쪽이 맛있을까요? 문어의 심장은 몇 개일까요?”였는데 전원 털락해서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골든벨의 문제는 주로 실생활에 필요한 교통 문제, 은행 이용 문제 등이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왔다.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김치찌개’, ‘전을 부칩니다’ 등의 맞춤법 문제였다. 참석한 젊은 사람도 잘 모르는 속담 문제도 척척 알아맞히는 걸 보니 시화전의 시가 생각났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받

아쓰기에서 백점만 받아 오는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천재’라고 하는 시였다.

틀리고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어르신 한 분이 웃음을 주기도 하고 폐자 부활전에서 들판거리던 어르신도 정리가 되면서 결승전은 5명으로 좁혀졌다. 마지막 받아쓰기 ‘윷놀이’ 한 문제로 골든벨이 울렸다.

골든벨의 주인공 정하자 할머니(78세·장림1동)는 윷놀이를 쓴 판을 흔들며 좋아하셨다. 카메라 앞에서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웃으셨다. 결승전 진출자 5명 중 3명이 장림1동 주민센터 문해교실 학습자이며 선생님들도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이 분들은 주민자치 어울마당에서 실버문화 연극 대상을 받은 분들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11월 30일에 있던 부산시 자치 경연대회에 사하구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시상을 준비하는 동안 색소폰의 연주로 빨간 모자 할머니들이 덩실덩실 춤을 춘다. 시상하려던 구청장도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어우렁더우렁 함께하는 평생학습이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글을 배우니 좋다는 공말남 할머니, 부모님이 지어주신 고운 이름을 찾았다는 이춘화 할머니. 이들의 평생학습을 응원한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수능한파가 어김없이 찾아온 11월 23일 오후 도시철도 당리역 안은 열기로 후끈했다. 제2회 사하구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한 해 동안 평생학습을 통해 재능을 익히고 동아리를 결성하여 재능기부와 봉사를 해오던 사하구의 동아리가 모여 끼와 재능을 맘껏 발휘했다. 춤과 악기와 노래, 시낭송으로 진행되는 동아리들의 공연은 바쁘게 지하철을 타려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을숙도바람소리의 하모니카 연주로 시작한 공연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

## 추위도 잊게 하는 동아리 공연 9개 동아리 열정 무대 선 보여

켰다. 한마음 색소폰의 연주에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하는 사람들. 얇은 옷차림으로 건강라인댄스를 추는 사람들은 75세 이상인 할머니들이었다. 낭랑한 목소리로 잃었던 시심을 불러주는 시낭송도 있었고 조용한 기타반주로 지난 노래를 불러주는 '칼립소'도 있었다. 종이를 삼킨 후 관

객인 꼬마를 불러 입에서 끝없이 종이를 끄집어내게 하는 마술공연은 관객들의 큰 손뼉을 받았다. 사하구의 행사마다 빠지지 않는 노란조끼 평생학습 플래시몹 댄스공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땀을 비 오듯 흘리며 혼신의 힘을 쏟은 문화재 타루의 설장구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로 동아리 공연은

마무리되었다. 10개 동아리 활동 회원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이었다.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공연은 그들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비록 박자를 놓치고 암송을 잊어버리는 실수가 있었지만 어느 전문 공연보다 진한 감동을 주는 것은 나이를 잊게하는 열정 때문이다. 식지 않은 열정으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들의 내년 공연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 정재찬 교수의 감성 인문학 콘서트

## 가까이 있는 이에게 빛나는 별이 되자

사하구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행사 중 하나로 '감성 인문학 콘서트'를 열었다.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정재찬 교수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정재찬 교수의 강의를 직접 듣고 정리해 보았다.

교환교수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신의 정원'이라 불리는 '자이언캐언'에 갔는데 깊은 밤에 도착했다. 운전으로 피곤한 허리를 펴 무심히 하늘을 올려다 본 순간 쏟아지는 별 때문에 눈이 시렸다. 어릴 적 방정환 선생의 '형제별' 노래가 생각났다. 이 노래를 들으면 별과 형제들이 동일시된다. 별은 친근한 존재가 되었다. 현대 반짝반짝 빛나던 별 하나가 사라지고 만다. 반짝거리던 별빛은 그저 눈물이 되고 만다. 이처럼 별은 밝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고 가슴 아프기도 하다. 왜 일까? 별은 멀기 때문이다. 그렇게 먼 데서 빛이 나기 때문이다.

김광섭의 '저녁에'라는 시가 있다. 마지막 부분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시다. 이 시를 읽고 영감을 얻어 그린 그림이 1970년 한국일보 재정 '한국미술대상전' 제1회 대상을

받은 수화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다. 또 1980년대 유심초가 부른 대중가요 뮤직 비디오 속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리저리 부닥친 수많은 사람은 어찌면 귀중한 유치원 친구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 친구일 수도 있다. 그림 속의 저렇게 많은 수많은 점들과 뮤직 비디오 속의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합쳐지면 '저녁에'라는 시가 완성 되는 것이다. 이 시가 그림으로 노래로 옮겨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도 누구나 경험해 봤음직한 낯익고 정겨운 경경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슴 뛰고 경이롭고 순수하던 그때가 그립고 정다웠던 이들이 그립기 때문이다.

은하계에는 천억 개의 별이, 그리고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천억 개 정도 있다. 그중 하나가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하나인 나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소중한 만남이건만 그 또한 시간의 힘을 이길 수 없는 법, 저녁별은 밤이 되면 사라지고 나 또한 그럴 운명이다. 별과 인간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이렇게 정다운 사이인 너와 나의 만남과 헤어짐은 또 어떻게 될 것인

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 시절 친구와의 인연을 생각해 보라. 그 만남은 얼마나 소중한 우주의 인연인가. 그러나 그 중 몇이나 다시 만나게 될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될지 벅차지 않은가. 숱하게 사라진 뜻별 같은 인연, 별은 결국 사람으로 이어진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을 별의 지위에까지 이르게 했다. 스타가 스타인 것은 많은 이가 우러러 보아서가 아니다. 저 한 몸으로 많은 이를 비춰 주기 때문에 스타인 것이다. 부모는 자식들의 스타가 되어야 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의 스타가 되어야 하며 의사들은 환자들의 스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역시 만인의 스타는 될 수 없지만 부모의, 자식의, 친구의, 연인의 스타는 될 수 있다. 가까이에서 서로를 비추어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혹시 우리는 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외롭다는 사실조차 있어서 그만 밤하늘의 별을 잊은 것은 아닐까. "왜 나한테는 별이 없지, 나는 별이 아니지?" 하고 투덜거리기만 했다. '누군가를 별처럼 빛내 주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시집을 꺼내 보기로 했다. 늦은 밤 함께 한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반짝이는 별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재찬 교수가 언급한 김광섭의 '저녁에'를 소개한다.

**하숙자** 평생학습 구민기자  
ssaksil@hanmail.net

### 저녁에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바쁜 정보 제공으로 독자들에게 도움 되는 것을 느낄 때 보람 있고 행복했습니다. (안옥순)

열정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사하배움마당 계속해서 파이팅입니다. (최진)

사하의 배움과 나눔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강경화)

**사하 복 많이 받으세요.**

- 사하배움마당 구민기자 일동 -

### 편집후기

#### 〈시승배움마당〉 은...

사하구 평생학습 현장을 뛰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하배움마당'에 더불어 추구하는 삶, 발전하는 삶까지 잘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함께하는 기자 여러분들이 있어 훨씬 즐겁게 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입니다. 내년에도 함께 잘 굴러갑시다. (이미성)

바쁜 기사를 쓰기 위해 나 자신을 갈고 다듬어 본 한 해였다. (하숙자)

올해도 6호의 '사하배움마당'이 탄생했다. 각 호마다 한두 편의 기사를 쓰면서 배우고 깨우친 시간이 남달랐다. 고인물에는 이끼가 낀다고 하던가? 더 많이 흘려보내고 채우려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낀다. (김광숙)

'사하배움마당'이 발행되면 9살 아들이 가장 먼저 신문을 펼쳐 "엄마 기사 여기 있어요." 하며 즐거워합니다. 기사를 취재하고 글로 표현하는 게 항상 힘들지만 여러 사하구민을 만나고 많은 분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열정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함을 배웁니다. 2018년에도 많은 사하주민들과 소통하는 평생학

습구민기가 되겠습니다! (김민정)

사하배움마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보았고 나도 날마다 희망으로 기득 찾다. (손현아)

두 달마다 스트레스가, 두 달마다 기분 좋은 성취감으로... (고명옥)

기자로서 나 자신을 돌아본 한 해였다. (김수현)

사하배움마당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하배움마당 되겠습니다. (이경녀)

## 아름다운 그대

# 10분 공연 위해 100분 연습하는 사람

## '목화향기' 김양희 회장의 향기로운 날들



사하구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는 우쿨렐레 공연이 빠지지 않고, 그 속에는 항상 그녀가 있다. 우쿨렐레 동아리 '목화향기' 김양희 회장이다. 우쿨렐레가 좋고 봉사하는 삶이 행복해서 모인 동아리 목화향기는 김양희 회장의 리더십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양희 회장은 음악이 좋아 안 해본 악기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우쿨렐레는 휴대가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라서 매력적이라고 했다. 다대 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쿨렐레 수업을 개설한 덕분에 배우기 시작했고 동아리까지 만들었다. 화·목요일마다 만나 꾸준히 연습하고 봉사한다.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요양병원과 행정복지센터, 구청이나 교회, 복지관 행사마다 초대되어 재능기부를 했다. 나날이 발전하는 회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한 번의 공연을 위해 수없이 연습한다. 이 과정은 리더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다. 언니 같고 동생 같은 회원들의 마음까지 쟁겨가면서 공연을 준비해 왔다.

유치원 교사였던 김양희 회장이 봉사 활동을 시작한 것은 24살 때부터였다. 선배가 일하던 영광재 활원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좋아하던 악기를 연주하면서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활동이었다. 다운증후군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예쁘게 다가왔고 장애인 아이들을 돌보면서 행복을 느꼈다고 한다. 결혼해서는 남편과 어린 딸도 함께 가족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김양희 씨의 봉사활동은 다양하다. 교회와 호스피스 병동에서 플루트 연주와 노래로 봉사한다. 대학생인 딸과 함께 재능기부 연주도 한다. 매월 동아리 회원들과 재능기부 봉사 활동을 한다. 봉



사하는 것  
이 행복하  
고 좋아서  
하는 일이

다. 최고는  
아니 더 라  
도 최선을  
다하는 삶  
을 살겠다

는 평소 생

각을 실천

하고 있는

것이다. 노래와 악기 연주로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면 그것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그녀다.

김양희 씨와 목화향기의 활약은 많은 사람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다대 2동 이종찬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행사 때마다 목화향기가 우쿨렐레 연주를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 후 이런 동아리가 조직되고 주민 행사에서 재능 기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사하구청에서 실시한 독서 한마당 행사와 11월 전국

독서 경진대회 시상식에서도 우쿨렐레 공연을 했다. 사하구청 독서 동아리 담당자도 목화향기의 재능기부에 대해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10분의 공연을 위해 100분의 연습이 필요하다. 한 명의 리더는 나머지 회원들을 이끌어야 한다. 나 하나의 감정도 추스르기 어려울 때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해아려가며 여럿이 하나의 소리를 내려면 힘들 때가 많을 것이다. 그래도 김양희 회장은 "우리 공연을 듣고 행복해지는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든 연주할 수 있어요. 연습 과정이 힘들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원들끼리 정을 나누는 시간이라 여깁니다."라고 말했다.

목화꽃의 꽃말은 '사랑합니다'이다. 김양희 회장은 목화꽃처럼 살고 싶다고 한다. 목화꽃 꽃말을 닮은 동아리 목화향기와 함께 요란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다. 소담한 목화꽃을 닮은 그녀의 모습이 향기롭다.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 현대미술에 다가가는 시간

### '사하문예인 도슨트양성과정' 개설



사하구 평생학습관이 고품격인문학 현대미술 강좌를 개설하였다. 인문학 수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부산현대미술관 개관에 발맞춰 도슨트 양성과정이 열렸다. 지난해와 올해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미술인문학 수업을 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9시에 12회로 진행되었다.

일과를 마친 직장인들이 서둘러서 강의실에 들어섰다. 주부, 현직 교사, 일반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의 수강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앞서 E.H 곰브리치를 중심으로 미술사를 배운 수강생들은 현대미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수업에 집중했다. 강의자료 상영을 위해 불을 끈 강의실이 마치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는 것처럼 수업에 빠져들었다.

다대포에서 열린 '2017 바다미술제'의 야외수업도 진행되었다. 강사의 동행과 도슨트 강사의 설명으로 부산비엔날레의 개최와 현대미술의 전폭적인 관심을 느끼고 문화예술 운동가와 다양한 작품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수강생 중에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에 참가하여 아크릴퍼즐을 맞추며 지역주민들에게 명화를 설명하였다.

색채전문가 배선주 강사는 "색(色)은 미학의 한 부분이고 미학은 감성을 다루는 학문이다. 미학은 미술과 예술을 평가할 때의 기준과 관련되고 현대미학은 철학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점점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미학을 함께 즐기면 좋겠다는 강사의 열정이 느껴졌다. 전문적인 지식을 주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강생의 눈높이로 맞춰 강의해서 주민들도 수업만족도가 높다.

수강생 임미남 씨는 시립미술관 도슨트로 활동하는 친구의 소개로 상반기에 미술 인문학 강좌를 들었다. 박물관 도슨트로 활동하면서 유럽 역사에 관심이 생겼고 역사와 예술이 연결되며 미술사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여행 중에 미술관을 둘러보며 미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 부산현대미술관이 개관되면 도슨트로 활동하고 싶다고 했다.

수료 후 수강생들은 동아리를 결성해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나갈 예정이다. 평생학습관은 부산현대미술관 사하문예인 도슨트 선발을 계획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는 수강생들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졌으면 한다.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 평생학습 빌리지 9개 마을이 뭉쳤다

### 마을 특색 살린 체험마켓과 나눔장터 열려

11월 28일 사하구 까치마을 행복센터에서는 '평생학습 빌리지 네트워크 축제'라는 특별한 잔치가 열렸다. 부산시내 평생학습 빌리지 9개 마을이 체험마켓과 나눔장터에서 각 마을의 특색을 살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마을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미도 컸다.

이날 행사는 부산 예술단의 개막공연인 개막맞이 굿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2017 평생학습 빌리지 네트워크 축제 주제영상 '마을에서 마을로'를 상영하였다. 낙후된 마을의 주민이 힘을 모으기 위해 마을 네트워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해 마을을 발전시킨 까치마을 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전경욱 부산도시재생센터장은 "마을이 뭉치면 힘이 생기고 일하기가 쉽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말했다. 참여한 주민들을 체험마켓과 나눔장터를 둘러보고 즐겼다. 사하구 까치고개 행복마을의 향기 조향제품이 눈길을 끌었다. 서구 아마농악마을의 스톤아트와 부산진구 당감본동마을의 석고방향제도 인기가 있었다. 이외에도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먹거리들을 체험하고 나눌 수 있었다. 마을버스킹 공연과 '마을에서 마을로'라는 대동놀이도 이어졌다.

부산시내 9개 마을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도시화 전 마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마을이라는 개념을 잊고 살아가는 이 시대,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보여주었다. '평생학습 빌리지 네트워크 축제'가 해마다 이어져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길 바란다.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 학구열에 불타는 전문가들

## 직업상담사 동아리 ‘아직꿈’

지난 11월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한 코너에서는 직업상담사 동아리 ‘아직꿈’ 회원들이 열심히 꿈을 나눠주고 있었다. 수능 한파로 날이 추웠지만 동아리 회원들은 상담 신청하신 한 분 한 분 성심성의껏 진로상담을 했다. 학생은 물론 5~60대 성인들도 직업전환이나 재취업 상담을 받았다. 주로 직업카드를 활용해서 진로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평생학습관 직업상담사 2급 필기와 실기 강좌를 수료한 학습자들 중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들과 예비 직업상담사 10명이 평생학습 동아리에 등록했다. 이들은 지역 청소년들과 학부모의 진로·진학 상담 봉사를 한다. 이들은 진로 직업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꿈’은 부산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그래서 전문강



사를 초빙하여 ‘아직꿈’ 회원과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 진로독서 코칭 수업을 들었다. 동아리 회원 중 두 분은 직업상담사 자격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아직꿈’ 회원들은 단합이 잘 된다. 각자 바쁜 일정에도 단합 등반 모임과 스터디, 봉사 등 동아리 활동에 참여율이 높다.

동아리 회장인 이승민(45세·하단동) 씨는 “우리 동아리 회원들 모두가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전환과 재취업에 성공하기 바란다. 활동이 잘 진행되어 사하구내 학교, 작은 도서관 등에서 봉사와 실습을 해 전문직업으로 연결되기 바란다”며 항상 동아리 행사에 앞장선다. 박미옥(53세·괴정동) 부회장은 월 1회 주제별 진로 독서 모임으로 역량강화도 하고 계속 공부하는 동아리가 되겠다며 회원으로서 자부심과 포부를 밝혔다.

‘아직꿈’ 회원들은 늘 공부하면서 봉사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기자가 만난 아름다운 직업상담사를 꿈꾸는 사람들의 얼굴은 환했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지역문제 체인지메이커 강좌를 듣고 ...

## 주민 스스로 지역을 바꾼다!

매일 뉴스에서 유명 정치인 이야기와 전국 핫이슈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반면 시시콜콜한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역 문제에 대해 언론 관심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지만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과 사람이 적어 이슈화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는 9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강좌를 개설한 것은 눈길을 끌었다. 평생 교육사 전현정 강사의 ‘지역 문제 체인지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첫 시간부터 지역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수업 시간이 부족했다. 주차단속, 쓰레기 무단 투기, 이주여성 지원, 에덴 공원 활성화 등 우리 지역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궁무진했다. 수강생들은 혼자 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도 넣어 봤다고 한다. 하지만 어려운 행정 절차 등 혼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 강좌를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선정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보기로 했다.

첫째, 하단동 에덴 공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에덴 공원은 다대포 물운대와 함께 팔선대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1970~80년대 부산 청년 문화의 메카로 명성이 대단했다. 공원 카페는 전국의 음악인들이 모여 라이브 공연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낙동강 하굿둑이 들어서고 강변 개발 바람이 불면서 에덴 공원의 명성은 역사 속의 뒤판길로 사라졌다.

수강생들은 직접 에덴공원에 방문하여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공원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

로 만들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즉 거대한 개발 사업을 통해 문화관광단지로 만들기보다 현재의 가치를 제대로 살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안으로는 상시적 버스킹 문화 공연, 자연환경 관리 강화, 재첩국길 조성 등이 나왔다.

두 번째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이다. 구청에서 CCTV 단속과 경고문을 곳곳에 부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이 많다. 수강생들은 신평동 골목길을 돌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방안으로 무단투기 방지 의무교육 강화, 자원활동센터와 연계한 ‘청소년 쓰레기 퇴치 밤’ 운영 등이 나왔다. 또한 하단동 대학가 일회용 컵 무단 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고민했다. 해결책으로 구청과 민간 카페과 협약을 맺어 카페 정문에 일회용컵 수거함을 설치하고 참가하는 카페에게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는 방법이 나왔다.

11월 1일 ‘지역문제 체인지메이커’ 강좌가 끝나고 수강생들은 ‘사하가꾸미’라는 평생학습관 동아리를 만들었다. ‘사하가꾸미’에서는 에덴공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얼마전 부산 기장에 있는 대변초등학교 개명 문제 대한 이야기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대변초등학교 이야기가 언론에 회자된 것은 학생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했기 때문이다. ‘지역문제 체인지메이커’ 강좌를 통해서 사하구 민들은 지역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조만간 사하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

배성민 (당리동주민)

## 새해에도 평생학습과 함께해요

### 2018년 평생학습관 겨울특강 수강생 모집

사하구평생학습관에서 12월 18일부터 겨울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 방학을 맞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겨울특강에는 아동과 성인대상으로 10개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주말 아빠와 함께하는 홈베이킹 프로그램은 방학동안 아빠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눈길을 끄는 강좌로는 요즘 TV 인기프로인 백선생의 만능소스 따라잡기 요리교실과 설을 맞이하여 직접 강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강정만들기, 졸업·입학시즌을 맞이하여 프리저브드 플라워 만들기 강좌가 있다. 배운 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우드버닝, 직업상담사2급 필기대비반, 생활 속 법률상식, 알면 아주 유용한 상속제도 등 유익하고 다양한 강의가 개설된다.

특히 이번 겨울특강에는 사하구평생학습관을 이용해 본적이 없는 신규학습자에게 수강신청 기회를 먼저 제공한다.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신규학습자들이 먼저 접수를 하고 12월 25일부터 1월 9일까지 기존학습자들이 접수를 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신분증 지참하여 평생학습관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 교재비, 자격증발급비는 수강생부담) 사하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관심있는 주민들은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보면 좋겠다.

(문의 ☎220-4117~8)

기관명	교육기간	요일	대상	시간	모집인원
3D스탬프 열쇠고리만들기	12~19 (2회, 4시간)	화	초등 3~6학년	10:00~12:00	20
3D피즐로 만드는 재미있는 한국사	14~125 (4회, 8시간)	목	초등 1~3학년	14:00~16:00	20
아빠와 함께하는홈베이킹	16~127 (4회, 8시간)	토	아빠&자녀	10:00~12:00	20
우드버닝 '목향화'	18~2,26 (8회, 16시간)	월	성인	10:00~12:00	18
※나무를 태워 무늬를 내는 기술					
직업상담사 국가자격증 필기대비반	19~2,28 (20회, 60시간)	화/수/금	성인	10:00~13:00	30
생활 속 법률상식	1,11 (회, 2시간)	목	성인	10:00~12:00	50
알면 아주 유용한 상속제도	1,18 (회, 2시간)	목	성인	10:00~12:00	50
백종원의 만능소스 따라잡기 요리교실	125 (회, 2시간)	목	성인	10:00~12:00	20
설맞이 강정 만들기(개인교류)	21 (회, 3시간)	목	성인	10:00~13:00	20
졸업식 입학식에선물을 프리저브드플라워만들기	2,28 (회, 2시간)	목	성인	10:00~12:00	20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